

#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 1. 다문화주의란?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국가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캐나다가 1971년 문화주의 조례(Multiculturalism Act)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대문화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그 용어가 확산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등장하였지만 나라마다 다문화주의를 채용한 원인과 다문화주의를 발전시킨 과정은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불어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2006년 이후로 다문화주의가 부각되었다.

## 2.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 2006년 4월 건강 가정 시민 연대가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용어는 2006년 5월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1)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로 인해 파생된 다문화 가정은 초기에는 외국인 남성과 국내 여성과의 결합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남성과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말부터 농촌 지역에 불기 시작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붐에 의해 본격화되더니 2004년에는 전체 농어촌지역의 결혼 건수의 27.4%에 해당할 만큼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혼혈 아동의 증가로 이어져,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아시안계 한국인 혼혈아인 ‘코시안(Kosian)’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코시안의 수는 2029년에 이르면, 무려 신생아3명 중 1명 꼴인 167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 3)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생활해 오므로써 생기는 사회 문화적 적응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터민의 한국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취업이기는 하지만 직장을 얻더라도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은 각각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는 한국내 거주 이전 단계에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보내면서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를 들 수 있고, 2세대는 한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1.5세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유아기를 보내고 한국에서 초·중등학교의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

## 3. 다양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면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주민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도 모두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 각 곳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국제결혼, 유학생, 경제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나, 관습 차이, 언어 차이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거주한다고 해서 모국어나 문화를 버리고 한국에 동화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 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인 색깔과 그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의 국가의 서열(경제적인 또는 국력의 측면에서)이나 임의적인 문화적 우월성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를 서열화하거나 한국문화보다 저평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